

고전소설의 대중화 문제

林 治 均*

| | |
|--------------------|-------------------|
| I. 서론 | III.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 |
| II. 고전소설 대중화의 전제조건 | IV. 결론 |

I. 서론

“박제가 되어버린 고전소설”

필자가 고전소설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다. 일제 강점기까지 구활자본으로 유통되면서 인기를 모았던 고전소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고전소설 전공자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아쉬움을 드러낸 말이기도 하다.

사실, 고전소설만큼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드물다. 우리 민족은 비극을 싫어한다. 하나의 예로,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삶을 비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시청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이러한 항의에 대해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꿈꾸는 것이 고전소설에서부터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소설이 당대인의 삶을 그려내는 장르라고 할 때, 고전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문학

설의 내용은 17~19세기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조선 후기의 격동기이다. 따라서 선조들의 삶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을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우리의 고전소설에서는 삶의 질곡에 짓눌려 좌절하는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룬 작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설사 주인공이 현실에서 더 이상 좌절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작품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바 있다.¹⁾ 본고에서는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몰각하고 있는 고전소설이 실상은 우리 민족의 삶의 자세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뿐이다. 이처럼 고전소설이 우리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지금처럼 ‘박체가 되어버린 고전소설’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뿐이다.²⁾

지금까지 고전문학의 대중화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³⁾ 이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소수의 전문 학자에 의한 연구 중심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고전문학으로는 21세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활로 모색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정 장르에 대한 대중화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대중화 논의도 의미

1)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3(1978);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영남대출판부, 1981). 특히 이들 논의에서 주목한 것은 중국의 설화나 소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 작품들이 원전과는 달리 행복한 결말로 끝을 내고 있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서사 전통에 행복한 결말을 지향하는 의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필자는 최근에 현대식으로 포장되어 보여지는 ‘남녀의 사랑과 그에 따른 시련과 극복’의 방정식 대부분도 역시 우리 고전소설의 혼사장에 모티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혼사장에 모티프에 대해서는 이상택, 「낙선재본 소설 연구-그 예비적 작업으로서의 혼사장에 주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소설의 탐구』(중앙출판, 1981) 참고.

3) 『정신문화연구』, 22권 2호(1999)에 ‘글쓰기의 전문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기획논문이 실려 있으며 『돈암어문학』, 12(1999)에도 ‘한국어문학 연구의 대중화’라고 하는 특집논문이 실려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이들 논의로 인해 ‘고전의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각 개별 장르 중심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고전 시가의 대중화 방안과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이 모두 같을 수가 없을진대, 이를 고전 문학이라고 하여 함께 다루는 것은 실질적인 논의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전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우선 대중화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전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고전소설 대중화의 전제조건

대중 문화가 영리 추구를 위해 조직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윤 추구를 위해 대중에게 영합하는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창작자 자신의 고유한 가치나 기술적 표현을 포기하게 하며, 고급 문화를 격하시키며 잠재적 고급 문화 창작자들을 경제적 흡인력으로 유혹하여 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대중에 대한 사ibi적 만족을 통해 정서를 파괴시키며 폭력과 성의 강조로 대중을 저속화시키면서 현실 도피 쪽으로 대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질을 저하시키며 수용자의 피동성을 조장하여 전체주의에 이르게 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의 전면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대중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중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곱씹으면, 바람직한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중 문화에 대한 비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수용자가 피동적이 된다.

4) 이강수, 『대중문화와 문화사업론』(나남, 1998), 23쪽.

물론, 두 번째의 문제는 수용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⁵⁾ 그러나, 수용자를 주체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창작자가 경시되거나 무시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어쨌든, 이상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건전한 대중 문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창작자와 수용자의 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건전한 대중 문화의 건설과 관련이 된다.

창작자와 수용자와의 관계는 그 실상에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대중 문화에 대한 인식의 면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창작자와 수용자가 대중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포지티브(+), 부정적인 면을 네거티브(-)로 구분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 경향을 찾을 수 있다.⁶⁾

- 창작자 (-) 수용자 (-)
- 창작자 (-) 수용자 (+)
- 창작자 (+) 수용자 (-)
- 창작자 (+) 수용자 (+)

위의 비판은 창작자와 수용자가 네가티브(-) 방향으로 움직이는 첫 번째 경향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다. 창작자와 수용자가 대중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 없이 경제논리 등에 이끌리거나 말단의 쾌락적 흥미 등에 탐닉하는 경우이다. 부정적인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쉽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직 소수에 의한 향유가 있을 뿐이다. 반면 네 번째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창작자와 수용자가 서로 주체적인 인식과 활동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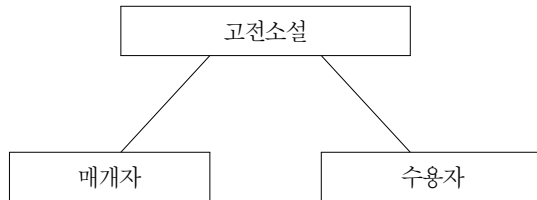
그런데, 고전은 이미 창작된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고전은 현대의 사람들

5) 이에 대해서는 설성경, 「고전문학 연구의 대중화 방안」, 『돈암어문학』, 12(1999), 9쪽.

6)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말은 좋아한다 또는 싫어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대중 문화를 주체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느냐, 경제 논리나 흥미 논리 등에 묻혀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나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형태이거나 표기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고전의 대중화는 현대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 문화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고전의 대중화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고전을 현대화하여 수용자에게 내놓는 일이다.

고전의 경우, 이미 창작된 작품이 누군가 매개자(중개자)의 손을 거쳐야만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창작자는 매개자(중개자)의 의미로 치환될 수 있다. 창작자가 산출하고 수용자가 그 산출된 작품을 향유하는 대중 문화와는 달리, ‘고전소설의 대중화’에서는 매개자와 수용자가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고전소설의 대중화’의 전제조건은 매개자와 수용자가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관심 역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 매개자 (-) 수용자 (-)
- 매개자 (-) 수용자 (+)
- 매개자 (+) 수용자 (-)
- 매개자 (+) 수용자 (+)

첫 번째 경우는 고전소설의 부정적인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변강쇠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변강쇠전』은 영화와 만화로 제작된 것을 계기로 우리 대중에게 매우 낮은 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정력의 화신’으로서의 변강쇠일 뿐이다. 필자는 이를 ‘변강쇠 신드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

였다. 고전에 대한 재해석과 수용은 매개자와 수용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원작의 본 뜻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대중화가 쉽다. 두 번째는 수용자의 관심을 따라갈 수 있는 매개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수용자의 관심을 더욱 배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네 번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네 번째의 형태로의 대중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선부른 대중화는 수용자들이 고전소설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실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매개자, (+)수용자는 고전소설에 대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출현할 수 없다. 고전소설에 드러나는 특정 내용이나 소재에 일회성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이러한 것에서 고전소설이 왜곡될 가능성은 더 크게 열려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고전소설이 상아탑에서 학문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문의 결과 역시 학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되었다.7) 그 결과, 고전소설은 대중과 멀리 유리되고 말았다

그러나, 요사이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학자나 전공자를 중심으로 대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맡기도 한다.8) 따라서 미약하지만 고전소설에 있어서 (+)매개자의 등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에 고전소설 전공과 관련된 인적 자원은 많다. 이들은 모두 긍정적인 매개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고전소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서도 고전소설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의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III의 2, ‘긍정적인 매개자의 역할’을 논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언급하겠다.

이에 반해 수용자의 반응은 아직 신통치 않다. 이들에게 고전소설은 여전히 낯설

7) 고전소설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30년대 이후, 고전소설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를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변변한 ‘교양서’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8) 설성경 교수의 일련의 행위는 가타부타를 떠나서 (+)매개자가(-)수용자에게 보내는 대중화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설성경, 앞의 논문 참고. 또한 정병현·이지영이 교주한 『춘향전』과 『심청전』(생각나라, 2000)은 그 표지에서 “이 책은 효자효녀·효부가 어버이께 선물하는 책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다.

고 재미없고 어려운 것일 뿐이다. 수용자가 없는데 매개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고전소설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용자를 (+)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물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 (+)매개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올바른 고전소설 대중화의 전제조건이 정해졌다. 즉 (+)수용자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매개자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자.

Ⅲ.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

1. 긍정적인 수용자 형성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판소리계 소설과 『홍길동전』, 『구운몽』, 『허생전』 등의 고전소설을 알고 있고,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전공이 고전소설인 것을 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고전소설을 알고 있다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한 작품들이 대체로 상기 작품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 이유를 우리의 ‘초·중등 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⁹⁾ 이들 작품은 초·중등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보통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 작품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 작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주인공이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다”, “내용과 구성이 천편일률적이다”, “우연성이 남발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¹⁰⁾ 그런데, 여러 작품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러한 인

9) 물론, 『콩쥐팥쥐』, 『장화홍련전』과 같이 어릴 적 동화의 수준에서 읽었던 작품들도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취학 전의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관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칫 고전소설을 동화의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10) 이는 필자가 접해 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으므로,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학교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선입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¹¹⁾, 마지막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아직까지 고전소설의 대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 어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참고하는 국어 참고서에서 고전소설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다.

소설

- (1) 개념: 설화, 패관문학, 가전체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傳奇, 話本 등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산문문학의 한 장르이다
- (2) 특징: ①才子佳人的 인물, ②문어체적인 문장 표현, ③비현실적인 신비로운 내용, ④권선징악적인 주제, ⑤사건의 결말이 해피 엔딩, ⑥사건의 전개가 우연적¹²⁾

국문소설

- ① 주제: 유교의 영향으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도덕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구성
·평면적 구성: 고대소설의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傳記的 구성: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행복한 결말: 『雲英傳』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행복하게 결말지어진다.
- ③ 인물
·평면적 인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주인공: 고대소설은 주인공의 일대기라고 할 정도로 주인공이 매우 중요하며,

11) 실제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사 지도용』의 내용을 보아도 “홍길동은 매우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로 설명되어 있다

12) 한샘국어교육연구회, 『Up Grade 문학 평가집』(한샘출판사, 2000), 53쪽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은 다만 주인공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

④ 사건

·우연성: 고대소설의 사건은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하게 발생한다

·비현실성: 고대소설에서는 현실세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¹³⁾

물론, 고전소설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고전소설에 드러나 있는 외형적 특징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켜야 할, 고전소설의 내면적 의미가 갖는 긍정적인 면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즉, 고전소설이 대체로 이와 같은 외형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복한 결말’은 외형적 특징이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한 자세 고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비현실성’ 역시 외형적 특징이지만, 그 속에는 당대 질곡의 현실을 살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소망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이러한 점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고전소설 교육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¹⁴⁾

또한, 이러한 평가는 은연중에 현대 소설이 비교의 잣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고전소설은 웬지 모르게 현대 소설과는 비교되지 않는 후진적인 것,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한다. 이렇게 고전소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수용자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

긍정적인 수용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중화란 공허해지기가 쉽다. 긍정적인 매개

13) 권영민 외, 『하이라이트 문학 1』(지학사, 2001), 71~72쪽.

14) 최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구운몽』, 『춘향전』, 『홍부전』을 중심으로 고소설 교육의 방향과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권순금, 「문제제기를 통한 古小說 教育의 방향과 시각」 『古小說研究』, 12(2001). 이러한 논의는, 고전소설에서 현대 소설의 소재로도 유용한 ‘꿈’, ‘사랑’, ‘가난(富)’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으며 그것을 얼마든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가 대중을 위한 글을 쓰거나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춘향전』 등의 작품을 알게 된 주원인을 학교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수용자를 만들어내는 일차적인 노력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고전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관심과 애정을 가진 수용자층으로 형성될 수만 있다면, 고전소설 대중화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소설 교육에 다소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고전소설 교육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논의의 결과는 고전소설 교육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인 수용자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¹⁵⁾

그러나, 현재 우리의 초·중등 교육 교과서에 실린 고전소설 작품의 유형과 수는 이를 달성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부터 살펴보자.

- 1) 4학년 1학기 - 『홍부와 놀부』
- 2) 5학년 2학기 - 『별주부전』
- 3) 6학년 1학기 - 『장끼전』
- 4) 6학년 1학기 - 『놀부전』
- 5) 6학년 2학기 - 『심청전』

특이하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 중학교 1학년 1학기 - 『홍길동전』
- 2) 중학교 1학년 2학기 - 『심청전』

15) 필자는 여기에서 고전소설 교육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론에 관한 것은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에 맡기고, 그 외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3) 중학교 2학년 2학기 - 『토끼전』
- 4) 고등학교 국어 상 - 『구운몽』
- 5) 고등학교 국어 상 - 『춘향전』
- 6) 고등학교 국어 상 - 『허생전』
- 7) 고등학교 국어 하 - 『홍보가』

여전히 판소리계 소설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결과 현행 초·중등 교육 기간인 12년 동안 학생들이 접하는 고전소설은 8종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을 반복해서 다시 배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학습자의 성장에 따른 교육 내용이나 교재가 달라지고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계속 같은 작품을 대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식상함은 물론, 고전소설에 대해 편협한 정보를 갖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인식의 폭과 깊이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하게 할 것은, 필자가 여기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우수성 여부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문학적 성취와 소설사적 의미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다만 고전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설 유형의 편식성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대중 문화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문학 작품은 그 사람의 문학적 소양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작품을 보다 풍성하게 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흔히 재미없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문학에 대한 기존 통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대중이 문학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¹⁶⁾

이상의 인용문은 고전문학 전반을 염두에 둔 언급이지만, 고전소설에 대해서도

16) 정우봉, 「국문학 연구의 전문성과 대중성」, 『정신문화연구』 22 권 2 호(1999), 21 쪽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중으로 자라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고전소설 작품을 접하게 한다면, 이들이 고전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층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소설은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 작가의 뛰어난 문재와 의식을 드러내면서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을 다루고 있는 『금오신화』와 같은 전기 소설부터 시작하여 주인공의 영웅적 삶을 그린 영웅 소설, 가정 내의 여러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 가문의 대내외적 완성을 그린 가문 소설, 피상적인 도덕률에 얽매어 일그러진 한 인간을 조롱하는 궤절 소설 등¹⁷⁾ 그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초·중등 교육에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 주장의 요지이다. 각 유형의 한 작품씩만이라도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 교육 과정에서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것이고, 그에 따라 학습자 학생들은 우리나라 고전소설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고전소설의 긍정적 수용자층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은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낀다.

2. 긍정적인 매개자의 역할

앞 절의 서술에서 어느 정도 언급된 바 있지만, 긍정적인 수용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전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매개자가 ‘대중을 위한 고전소설 교양서’를 저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만약 대중이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긍정적인 매개자가 우선 수행해야 할 일은 긍정적인 수용자들이 고전소설 작품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소설의 원본은 흘려쓰기는 물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17) 이상의 유형은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명명한 것, 소재를 바탕으로 명명한 것 등이 섞여 있다. 이는 구체적인 유형 분류를 염두에 두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분류한 것임을 밝힌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잘못된 어휘 표기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다. 다음은 고전소설 가운데 그나마 읽기가 양호한 방각본 가운데 한 작품이다.

이러한 형태의 작품이 그나마 읽히기 위해서는 현대 활자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 활자화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휘의 생경함 때문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고전소설 작품을 가르치고 배울 때, 가장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어휘이다. 이는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고전소설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자가 되고자 할 때도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이다.

숙종 대왕 즉위 초에 성덕이 넓으시사 성자 성손은 계계승승하사 금구옥축은 요순 시절이요, 의관문물은 우탕의 버금이라 최우보필은 주석지신이요, 용양 호위는 간성지장이라. 조정에 흐르는 덕화 향곡에 퍼졌으니 사해 곧은 기운이 원근에 어려 있다. 충신은 만조하고 효자 열녀 가가재라 미재 미재라 우순풍조 하니 함포고복 백성들은 처처에 격양가라 이 때 전라도 남원부의 월매라 하는 기생이 있오되 삼남의 명기로서 일찍 퇴기하여 성가라 하는 양반을 데리고 세월을 보내되 연장사순에 당하여 일점혈육이 없어 이로 한이 되어 장탄수심의 병이 되겠구나 일일은 크게 깨우쳐 옛 사람을 생각하고 가군을 청입¹⁸⁾

위의 원문을 이와 같이 현대 활자화할 때는 띄어쓰기는 물론 원본에 잘못 표기된 글자까지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고전소설의 어휘에는 현대의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한문과 고사 등이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역주본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문과 고사를 쉽게 설명해주고, 잘못된 어휘를 바로 잡아서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역주본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구서들이 출간된 것도 힘을 더해주고 있다.¹⁹⁾

그러나 역주는 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당한 노력과 끈기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역주는 고전소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연구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주 작업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작금의 분위기이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역주 작업에 매달려서 하나의 결과물을 냈다고 할 때, 많이 나아졌다고

18) 원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예를 들기 위해 원문을 현대어로만 고쳤다.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고전소설 독해사전』(태학사, 1999); 박재연 『고어스던』(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 2001).

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체로 개인적 성취감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역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정당한 평가가 반드시 뒤따르도록 쇄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공을 들여 역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성이 거의 없는 이들 자료에 대해 선뜻 대중을 위한 출판물로 만들어보겠다고 나서는 출판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역주된 작품들 역시 전문가를 위해서만 출판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이용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역주와 출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 역사 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어, “지식 자원 관리법”에 의거 ‘지식 정보 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옛 유산을 정보화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고전소설에 대해서도 일부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전소설에는 우리 전통의 삶에 대한 의식이 있고 생활이 있다. 이들의 화소가 잘 정리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전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주인공의 탄생 과정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기자 치성, 태몽, 탄생의 분위기 등에서 전통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는 현대의 정보 산업(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우리 식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고전소설에 대한 정리와 역주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좀더 거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역주는 일반 대중 독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의 독서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중화를 위한 기틀은 될 수 있을지라도, 대중화까지 나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의 독서라고 하는 것은 줄거리 중심으로 읽어 가면서 동시에 주석된 것을 찾아 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房子놈 여짜오되 雪膚花容(1)이 南方에 有名키로 方僉使(2), 병부사, 郡守 縣監, 官長님네 엄지 발가락 두 뺨가웃식 되느(3) 兩班 外入匠 誤入匠 이들도

무수히 보려 하되 莊姜(4)의 色과 任姒(5)의 德行이며 李杜(6)의 文章이며 太姒의 和順心과 二妃(7)의 貞節을 품었으니 今天下之絕色이요 萬古女中君子요 니 惶恐하온 말씀으로 招來하기 어렵네다

- (1) 눈같이 흰 皮膚와 꽃같이 고운 얼굴
- (2) 方伯은 觀察使의 別稱. 僉使는 府使의 略稱.
- (3) 兩半이니 두 뺨 가웃임.
- (4) 春秋時代 衛莊公의 夫人. 「左傳」에 「衛莊公이 齊나라 東宮 得臣의 妹를 아내로 얻으니 莊姜이라 함. 아름답게 생겼으나 子息이 없었다」고 있음
- (5) 太任, 太姒를 말함. 太任은 王季의 妻이며 周 文王의 母요, 太姒는 文王의 妻이며 武王의 母.
- (6) 李白과 杜甫
- (7) 堯의 二女이며, 舜의 二妃. 舜을 좇아 南으로 왔다가 湘水에 溺死하여 湘水 神이 됨.²⁰⁾

본문을 읽을 때, 독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는 읽기를 멈추고 그에 대한 주석을 보아야 한다. 인용문의 경우, 주 자체도 한문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글로 쉽게 주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원문과 주를 번갈아 보아야 하는 두 가지 방식의 독서는 필연적이다. 독서의 연속성이 깨지고 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주본을 낼 수 있는 전문적 연구자와는 또 다른 긍정적 매개자의 출현과 그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이는 앞의 2절 ‘대중화의 전제 조건’에서 긍정적 매개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서 선조들의 독서 형태를 추정해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연 우리 선조들도 이러한 모든 어휘와 고사를 이해하고 이들 작품을 읽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다소 회의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의 우리보다는 나았겠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의 선조들이 설령 어휘의 정확한 뜻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대목의 정조와 분위기로 전체를 감상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는 작품에 쓰인

20) 『韓國古典文學大系 10 춘향전』(민중서관 1970), 23 쪽 이 책에는 頭註로 되어 있으나 서술의 편의를 위해 바꾸었다.

어휘에 당시 선조들이 어느 정도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대중 독자들에게 고전소설에 사용된 어휘는 낯설기 그지없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그 대목의 정조나 분위기를 알아서 작품을 감상하라고 맡겨둘 수는 없다. 오히려 고전소설의 긍정적 매개자들이 이들 작품의 情調나 분위기를 살려서 현대적인 어휘로 되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자가 말하였다.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문으로 들은 무수한 양반 오입쟁이들이 한 번만이라도 춘향이를 보려고 안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그러니 굳은 절개를 가슴에 품고 현명하고 맑은 행실을 가진 춘향이를 함부로 오라 가라 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²¹⁾

이 글은 역주본의 정조와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어휘는 현대화된 예이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주석을 참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역주본과는 달리, 고전소설 독서에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원전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어휘와 문장은 다르지만 고전소설의 정조와 분위기,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고전소설 현대어로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매개자의 양성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고전소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고전소설의 분위기와 정조를 살려 현대어로 복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끊임 없는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 대학교 국어국문과의 커리큘럼에 ‘고전소설의 현재화’(가칭)와 같은 과목이 개설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²²⁾ 이를 통해

21) 필자는 이러한 방면에 그다지 소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훈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필자가 행한 현대어화가 매우 어설픈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고전소설을 현대어로 표현할 때, 원전의 정조와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숙함을 무릅쓰고 예로 제시한 것이다.

2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전소설이 대중화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하는 파생품들이 나올 수 있고 대중화될 수 있다. 고전소설이 대중화되어 익숙하게 되었을 때, 고전소설의 내용을 패러디한 작품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고전소설을 근간으로 한 창작물이나 상업물 그리고 기타 장

고전소설을 현대어로 되살리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매개자의 양성으로 성과가 이어질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고전소설 대중화의 전제 조건으로 우선 고전소설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해 줄 긍정적인 매개자와 이를 적절하게 받아드릴 긍정적인 수용자가 우선 요구된다.

둘째, 긍정적인 수용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등 학교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학습은 고전소설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특징에 드러나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서 다루는 작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판소리계 소설 중심의 교과서 내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포는 학습자들에게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유형과 작품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고전소설이 뻥한 유형의 뻥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줄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수용자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셋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고전소설을 전공한 긍정적인 매개자들은 우선 읽기 어려운 고전소설 원본을 현대 활자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고전소설에 드러나 있는 어렵고 생경한 한자나 고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주본을 내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주본은 작품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은 주석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방식의 독서 방식으로 인하여 독서의 연속성을 해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소설의 정조와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르로의 전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춘향전』, 『심청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현대의 예술가들이 현대 소설(최인훈, 『춘향년』)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뮤지컬(『성춘향』), 현대 무용(『심청전』) 등으로 다시 다루고 있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익숙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소설이 더욱 대중화되면 이러한 작품들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어로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원전의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고전소설의 현대어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매개자의 양성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국어국문과’에 이들의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에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고의 논의 결과는 그 가운데 한 곳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옛날의 것을 오늘날 대중들에게 되살리는 일은 우리의 뿌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고전소설의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韓國古典文學大系 10 춘향전』, 서울: 민중서관 1970.
- 권순궁, 「문제제기를 통한 古小說 敎育의 방향과 시각」, 『古小說研究』 12, 2001.
- 권영민 외, 『하이라이트 문학 1』, 서울: 지학사, 2001.
- 박재연, 『고어스던』, 아산: 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 2001.
-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3, 1978.
- 설성경, 「고전문학 연구의 대중화 방안」, 『돈암어문학』 12, 1999.
-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대구: 영남대출판부, 1981.
- 이강수, 『대중문화와 문화사업론』, 서울: 나남, 1998.
- 이상택, 「낙선재본 소설 연구-그 예비적 작업으로서의 혼사장에 주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 소설의 탐구』, 서울: 중앙출판 1981.
- 정병헌이지영 교수, 『춘향전』, 서울: 생각나라, 2000.
- _____, 『심청전』, 서울: 생각나라, 2000.
- 정우봉, 「국문학 연구의 전문성과 대중성」, 『정신문화연구』 22 권2 호, 19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고전소설 독해사전』, 서울: 태학사, 1999.
- 한샘국어교육연구회, 『Up Grade 문학 평가집』, 서울: 한샘출판사, 2000.

주요어

고전소설, 대중화, 창작자, 매개자, 수용자, 고전소설 교육, 고전소설 역주